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의 특징과 비자발적 시간제 국제비교

정 성 미*

I. 머리말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시간제 비중이 높은 여성으로 보더라도 크게 낮다. 전일제 근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편인 데다 일상적 초과근로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노동시장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 노동시장 내 시간제 근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그리고 여성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특히 여성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임금근로자 중 10% 초반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상승해 2018년 22% 수준까지 증가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과 일자리의 질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가 자발적 선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과 일자리 선호도 측면을 고려한 시간제 일자리의 자발성 논의가 매우 활발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관련 통계도 미비했고,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에 관한 논의가 확장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시간제 일자리 선택의 비자발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사람에게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혹은 “전일제 일을 할 수 없어서”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했는지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동일한 형태의 질문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제 근로로 정해진 이유가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입니까」라는 문항으로 2013년 이후 조사해 오고 있었고, 이를 최근 공개하였다.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의 시간제 일자리의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의 시간제 근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후 시간제근로자 중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시간제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자발적 시간제와 그렇지 않은 자발적 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smjung@kwidmail.re.kr).

간제의 규모와 특징을 분석하고, OECD 국가들과도 비교해 비자발적 시간제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II.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 현황 및 특징

시간제 근로¹⁾의 규모와 추이를 통해 일자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1>은 임금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의 규모 및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 시간제근로자는 2,709천 명으로 임금근로자 20,045천 명 중 13.5%를 차지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 비중은 2003년 929천 명(임금근로자 중 6.5%)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특히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 변화를 이끄는 것은 주로 여성에서의 변화이다. 2018년 8월 기준 남성 시간제근로자는 737천 명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2.9%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증가를 지속하고 있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다. 한편 여성 시간제근로자는 2018년 8월 1,971천 명으로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2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시간제 근로 비중은 2005년 11.6%에서 현재까지 여성 시간제 근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금융위기 이후와 2016년 두 번의 급격한 증가를 겪으며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시간제 근로 변화는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2003년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 비중이 20%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15~24세 청년층은 2003년에는 시간제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2018년 현재 3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시간제 근로 비중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청년층(15~24세)의 경우 남성은 2005년→2018년에 17.9%p, 여성은 21.3%p 증가하였고 고령층(60세 이상)은 같은 기간 남성은 11.3%p, 여성은 27.8%p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청년층과 고령층에 몰리는 현상은 성별의 차이를 보이고 있

1) 본 분석에서 시간제 근로는 통계청의 근로형태 정의에 따라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로 정의한다.

지 않다. 다만 남성은 25~29세를 제외하고 2005년에 비해 시간제 비중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시간제 근로가 증가했다. 육아·보육 등의 사유로 본격적

〈표 1〉 성별 임금근로자 및 시간제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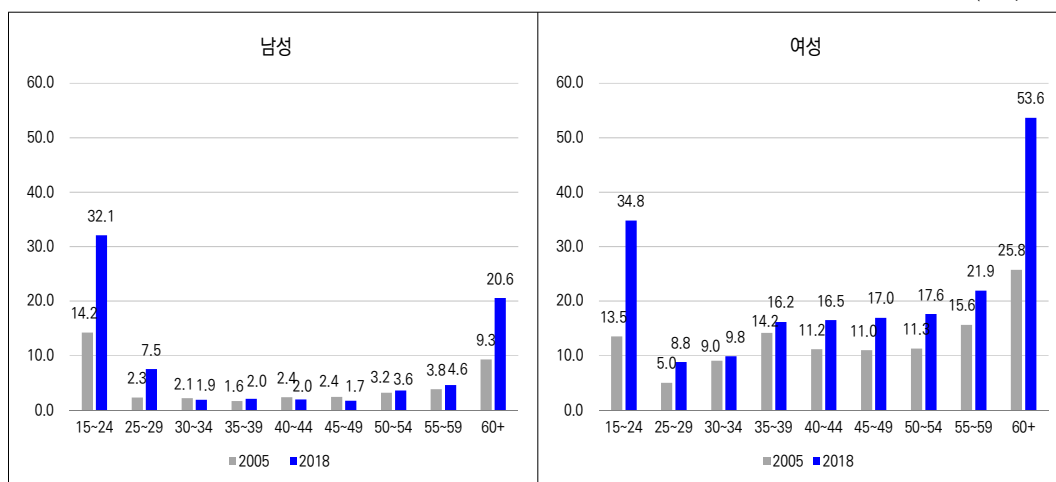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임금근로			시간제			시간제 비중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03	14,195	8,312	5,883	929	239	690	6.5	2.9	11.7
2004	14,618	8,515	6,103	1,069	277	792	7.3	3.3	13.0
2005	14,948	8,667	6,282	1,037	307	730	6.9	3.5	11.6
2006	15,420	8,953	6,467	1,127	341	786	7.3	3.8	12.1
2007	16,006	9,326	6,680	1,199	359	840	7.5	3.9	12.6
2008	16,258	9,464	6,793	1,230	373	858	7.6	3.9	12.6
2009	16,609	9,588	7,020	1,428	367	1,061	8.6	3.8	15.1
2010	17,189	9,870	7,320	1,623	425	1,198	9.4	4.3	16.4
2011	17,715	10,168	7,547	1,708	470	1,237	9.6	4.6	16.4
2012	17,941	10,278	7,663	1,828	505	1,323	10.2	4.9	17.3
2013	18,403	10,517	7,886	1,882	523	1,360	10.2	5.0	17.2
2014	18,992	10,796	8,196	2,035	584	1,450	10.7	5.4	17.7
2015	19,474	11,007	8,468	2,236	684	1,553	11.5	6.2	18.3
2016	19,743	11,086	8,658	2,488	707	1,780	12.6	6.4	20.6
2017	20,006	11,188	8,818	2,663	761	1,902	13.3	6.8	21.6
2018	20,045	11,171	8,874	2,709	737	1,971	13.5	6.6	2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그림 1〉 성별, 연령별 시간제 비중 추이(2015년, 201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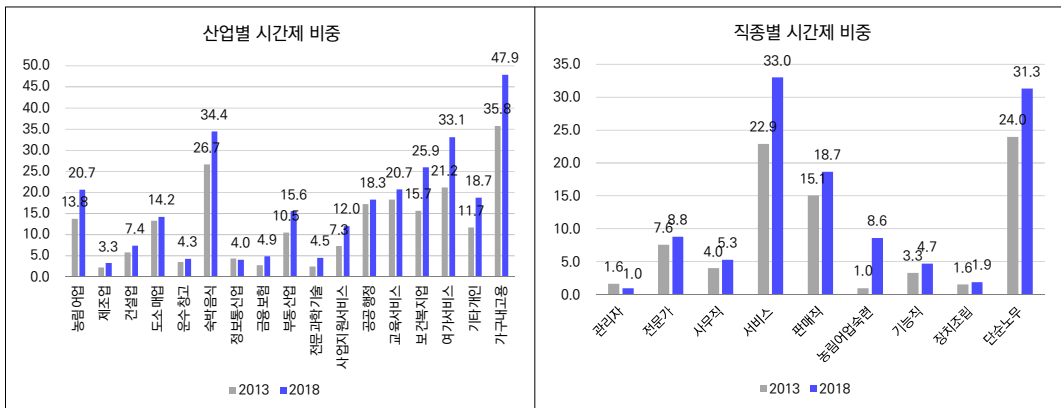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경력단절을 겪는 30대보다 40~59세에서 시간제 근로 비중이 더 많이 증가했다.

산업별 및 직종별 시간제근로자의 분포는 각각 10차, 7차 분류 기준으로 분석가능시점인 2013년과 비교하도록 한다. 먼저 시간제 근로가 각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보면 전기·가스업과 정보통신업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시간제 근로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내 시간제 비중이 2013년 26.7%에서 2018년 34.4%로 7.7%p 증가하였다. 또한 부동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복지업, 여가서비스업 등에서 2013년 대비 2018년 시간제 근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직종별 시간제 분포 변화를 보면,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시간제 근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 근로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직종인 서비스직(22.9% → 33.0%), 판매직(15.1% → 18.7%), 단순노무(24.0% → 31.3%)에서 크게 증가했다.

[그림 2] 산업별, 직종별 분포 추이(2013년, 2018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상대적 기준에 따라 시간당임금의 중위값의 2/3 미만을 저임금, 2/3 이상 중위임금 미만을 중저임금, 중위임금 이상 3/2 미만을 중고임금, 3/2 이상을 고임금으로 정의하고 임금분포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 저임금 비중은 전체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약 1/4 수준에서 약간의 변동을 하고 있으며 남성은 약 15% 수준에서, 여성은 약 40%를 중심으로 변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거치며 여성을 중심으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급격한 변화가 관찰된다. 금융위기 이후 30%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2012년 이후 추세적 감소를 보이며 30% 초반 수준까지 감소했고, 2018년 25.3%까지 줄어들었다. 2018년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서도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해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저임금 비중이 줄어 18.0%까지 감소했다. 이는 2018년은 최저임금이 16.4% 증가한 해로 이러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시간제 근로 중 저임금 비중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저임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44.1%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적은 시점 이후 저임금근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오면서 2012년 62.5%로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60% 수준을 유지해 오다 2018년 49.6%로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성별로 보면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2014년 이전까지 1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다 201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2004년 이후 시간제 중 저임금이 꾸준히 증가해 2014년 63.0%까지 치솟았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8년 49.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저임금 비중 변화 추세와는 다른 모습으로 여성 시간제의 상당수가 저임금상태에 있어 큰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2〉 저임금근로자 분포 추이

(단위 : %)

	저임금 비중			시간제 중 저임금 비중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남 성	여 성
2004	26.3	15.4	41.6	44.1	12.3	47.6
2005	26.8	15.8	42.0	46.8	12.8	49.9
2006	29.2	18.0	44.6	50.8	12.3	54.6
2007	28.5	17.6	43.8	51.5	11.9	55.2
2008	25.9	16.1	39.5	52.6	12.6	55.1
2009	27.1	17.0	41.0	55.5	14.8	55.9
2010	26.3	16.2	39.8	56.5	13.2	56.7
2011	22.5	13.6	34.6	53.7	11.4	53.7
2012	25.5	15.8	38.5	62.5	12.5	62.3
2013	24.7	15.4	37.3	62.0	11.6	62.5
2014	24.0	14.5	36.4	62.3	10.3	63.0
2015	21.3	13.3	31.7	57.9	8.3	58.5
2016	23.2	15.2	33.6	57.7	8.3	57.3
2017	23.8	15.7	34.0	60.8	7.9	61.1
2018	18.0	12.1	25.3	49.6	6.8	49.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Ⅲ.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 특징 및 국제비교

1.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 특징

OECD 주요 국가의 시간제 및 비자발적 시간제 정의는 <표 3>과 같다. 대체로 유럽국가들의 시간제 근로 정의는 본인이 시간제로 일하는지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비자발적 시간제를 ‘전일제를 찾을 수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그 외 국가들은 시간제 근로를 평소 근로시간이나

실근로시간이 일정 시간보다 짧은 경우로 정의하고, 비자발적 시간제 정의를 ‘전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거나 ‘전일제 일을 할 수 없거나’,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다’ 등을 추가로 질문해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간제 중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를 비자발적 시간제로 보는 것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전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를 비자발적 시간제 정의하고 2013년 이후 조사하였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가중치 조정 후 자료를 재공개하는 과정에서 공개되어 국제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이러한 국제적 기준의 비자발적 시간제 항목이 없을 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지난 주 일자리 형태로 일하게 된 것이 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입니까?’의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문은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차원이 뒤섞인 채 현재 일자리 선택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실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직접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

〈표 3〉 OECD 국가의 시간제 근로 및 비자발적 시간제 정의

국 가	시간제 정의	비자발적 시간제
한국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전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터키, 영국,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헝가리	주된 일자리에서 근로자 본인이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지의 판단에 따라 정의	전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호주	평소 1주에 3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평소 1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중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은 경우
캐나다	주된 일자리에서 평소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전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핀란드	주된 일자리에서 평소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전일제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일본	1주에 실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원하는 경우
네덜란드	평소 1주에 3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전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노르웨이	1주에 실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전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스웨덴	평소 1주에 3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전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시간을 늘리고 싶거나, 전일제 근무를 할 수 없어서
미국	평소 1주에 3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전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일을 더 하기 원하는 경우

자료 : OECD, www.oecd.org/els/employmentpoliciesanddata/LFSNOTE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는 다른 고용형태와 배타적이지 않고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현재 일자리를 시간제로 판단하고 응답했는지 아니면 다른 고용형태로 판단하고 응답했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국제적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비자발적 시간제 규모는 2018년 기준 전체 시간제 중 20.6%로 나타났다(표 4 참조). 2013년 25.2% 이후 20%를 상회하는 수준을 횡보하다 2017년 이후 연속 감소하였다. 반면 비자발적이지 않은, 즉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했다는 비중은 2018년 79.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간제 근로 선택 이유를 ‘시간제 근로를 원해서’라고 직접적으로 물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별로 보면 2018년 기준 시간제근로자 중 여성은 16.4%가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31.8%로 나타나 여성이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는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2013년 비자발적 시간제의 비중이 21.8%였으나 2016년을 제외하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보다 남성이 전일제 일자리 선호가 더 강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여성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상대적 선호가 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비자발적 시간제 및 근로형태별 비자발시간제 비중 추이

(단위 : %)

	전 체		성별 비자발	
	비자발	자발	남성	여성
2013	25.2	74.8	33.9	21.8
2014	23.6	76.4	32.0	20.3
2015	24.0	76.0	31.4	20.7
2016	25.8	74.2	34.8	22.2
2017	23.2	76.8	32.0	19.7
2018	20.6	79.4	31.8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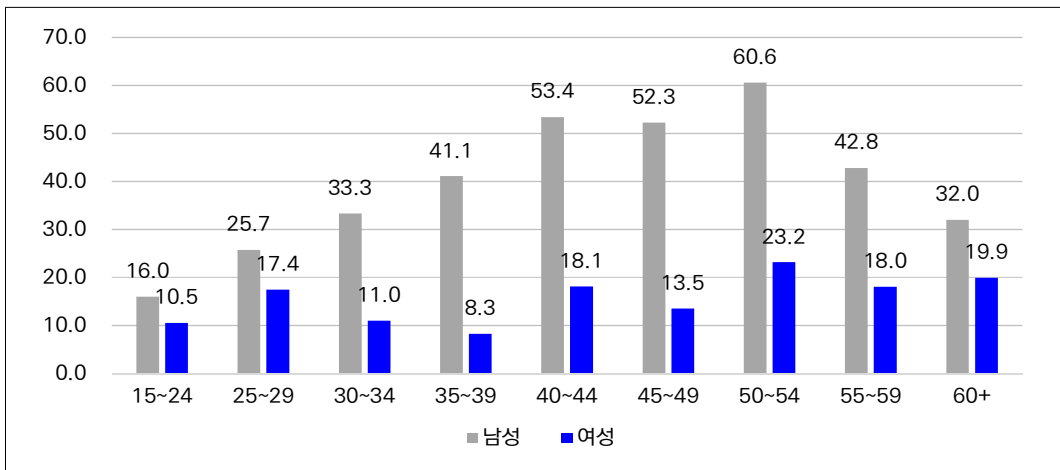
주 : 시간제근로자 중 '전일제를 구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자발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세부적으로 연령을 나누어 성별로 시간제 선택의 비자발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시간제 근로 비중이 가장 높았던 15~24세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은 남녀 모두 비자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시간제 근로의 선호가 자발적 선택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25~59세 연령대를 세부적으로 보면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전체 연령대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자발적 시간제 선택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일제 선호경향이 강해 시간제 근로 중 비자발적 선택 비중

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0~54세에서 시간제 근로의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여성은 남성의 패턴과는 다른데 50~54세에서 시간제 근로 중 비자발 비중이 23.2%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 20% 미만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가정 양립의 선호가 높은 연령대에서 시간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출산·육아 등 돌봄의 이유로 노동시장 이탈이 가장 높은 30대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선택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그림 3] 성별, 연령별 비자발 비중(2018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8월.

기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지난주 일자리 형태로 일하게 된 것이 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입니까”라는 문항으로 자발적/비자발적 사유를 묻고 있으며, 자발적 사유에는 근로조건에 만족하거나 안정적 일자리인 경우를, 비자발적 사유에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로 분류하고 있고, 자발/비자발 모두에 공통되는 사유로 경력을 쌓아 직장이동을 하기 위해, 육아·가사 병행을 위해,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려고, 노력한 만큼의 수입 때문에, 근무시간조절가능성, 기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임금근로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일자리를 선택한 주관적 이유를 알 수 있을 뿐이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이 아니다. 특히 시간제 근로는 모든 근로형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시간제 근로에 대한 응답인지, 아니면 다른 고용형태에 대한 응답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한 결과를 “시간제 선택”의 자발성 여부로 직접적으로 보기 어렵다.

<표 5>는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라는 국제적 기준의 시간제 근로 선택의 비자발성과 통계청에서 주관적 판단으로 비자발성을 묻는 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국제적 기준의 비자발과 통계청 정의 자발의 교차값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기존 설문에 따라 통계청 기준의 자발로 분류되는 사람이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의 비자발로 응답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제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조사되는 시간제 근로 선택의 비자발성은 시간제근로자의 20.6%로 조사된 반면 통계청에서 직접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를 묻는 경우는 47.9%로 두 배 이상 많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정의에 의하면 비자발적 선택이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중이 27.4%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시간제 근로선택의 비자발성을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이 아닌, 현재 일자리를 선택한 사유를 묻는 간접적 방식에 의한 것으로 일종의 일자리 만족도 조사에 가까운 질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 시간제 근로 비자발성 정의에 따른 규모(2018년)

(단위 : 천 명, %)

	비자발 (=전일제를 구하지 못해서)	자발	전 체
통계청 정의 자발	-	1,411(52.1)	1,411(52.1)
비자발	557(20.6)	741(27.4)	1,298(47.9)
계	557(20.6)	2,152(79.4)	2,709(100.0)

주 : () 안은 시간제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8월.

다음으로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사유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시간제 전체를 보면,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32.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근로조건에 만족이 27.0%로 나타났으며 육아·가사 병행과 취업준비 병행이 각각 10%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자발적 시간제와 비자발적 시간제로 나누어 보면, 비자발적 시간제 중 65.8%가 당장 수입이 없어서라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 원하는 일이 없어서(17.9%)라고 해 전체 시간제 근로의 경향과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는 기존 통계청에서 조사해 오던 ‘자발/비자발’ 기준에 맞춰 자발로 분류되면, 국제적 기준의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라고 응답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제해 두고 있어 통계청 정의의 자발적 사유인 ‘근로조건 만족’과 ‘안정일자리어서’의 응답이 0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전일제 근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자발적 시간제의 경우 근로조건 만족이 34.0%로 가장 많았지만 당장 수입이 없어서가 24.2%로 그 뒤를 이어 시간제를

선택한 이들도 비자발적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비자발적 선택 사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자발적 선택 사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남녀 모두 근로조건 만족이 30% 이상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당장 수입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것은 비슷했으나, 남성은 취업준비 병행이 19.4%로 셋째로 높은 한편, 여성은 육아·가사 병행이 16.6%, 취업준비 병행이 10.1%로 나타나 돌봄의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를 보였다.

〈표 6〉 시간제 근로 선택의 비자발성 정의에 따른 일자리 선택 사유(2018년)

(단위 : %)

	시간제 전체	전 체		남 성		여 성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발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조건 만족	27.0	0.0	34.0	0.0	32.2	0.0	34.6
안정적 일자리	3.9	0.0	5.0	0.0	5.0	0.0	4.9
당장 수입	32.8	65.8	24.2	66.1	25.4	65.6	23.9
원하는 일 없어서	5.6	17.9	2.4	21.9	3.9	15.0	1.9
전공경력 불일치	1.3	3.3	0.8	3.5	1.4	3.3	0.7
직장이동 위해	2.6	3.7	2.3	2.7	4.8	4.4	1.5
육아가사 병행	10.9	3.2	12.8	1.1	0.5	4.7	16.6
취업준비 병행	10.2	2.2	12.3	2.4	19.4	2.1	10.1
노력한 만큼 수입	2.0	1.3	2.2	0.4	2.8	1.9	2.0
근무시간 신축조절	3.2	1.9	3.5	1.4	3.7	2.2	3.5
기타	0.6	0.7	0.6	0.5	1.0	0.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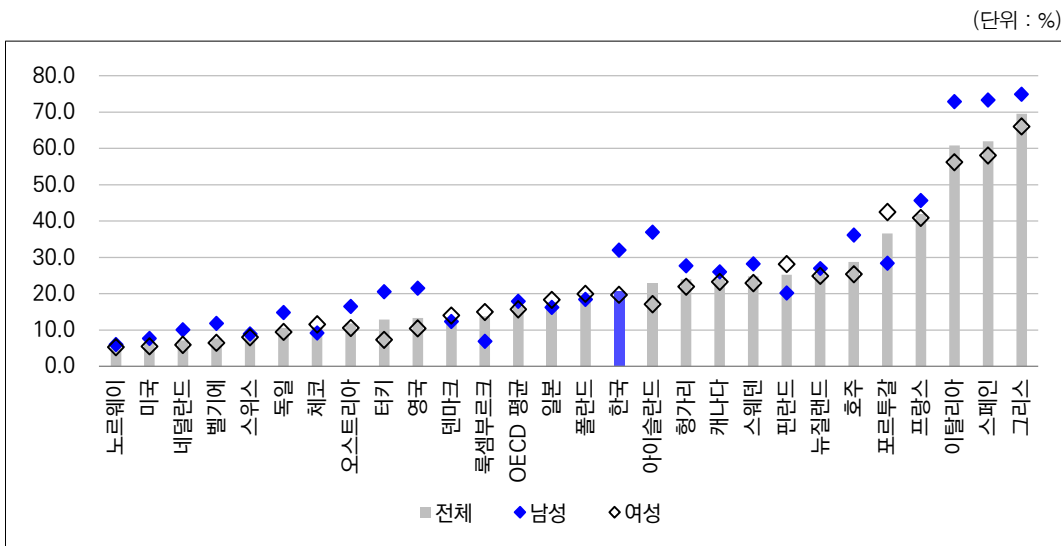
2.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국제비교

각 국가별로 시간제 근로를 정의하는 방식이나 시간제 일자리의 질, 전일제와 시간제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 선택 수준과 선택의 자발성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별 비교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어느 지점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비자발적 시간제 비중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특별히 비자발적 시간제가 많은 나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림 4 참조). OECD 평균(16.4%) 수준보다는 약간 높지만, 극단적으로 높은 남부유럽국가(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을 제외하고 대체로 20% 초반 수준에 있는 국가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포르투갈, 핀란드, 폴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덴마크, 체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남성의 비자발적 시간제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 비자발적 시간제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며 남성 시간제 근로의 70% 이상이 비자발적인 남부유럽(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프랑스(45.7%), 아이슬란드(36.9%), 호주(36.2%) 다음으로 비자발 시간제 비중이 높다. 또한 표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남성은 노동시장 진입연령인 청년층과 은퇴시점의 중고령층에 비해 핵심연령층(25~54세)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우리나라 남성 핵심연령층의 비자발적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 여성 비자발 시간제 비중은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여성 비자발적 시간제가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넘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40% 수준인 프랑스와 포르투갈, 21~25% 수준인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헝가리 다음에 위치해 있다.

[그림 4] OECD 국가들의 비자발적 시간제 비중(2017년)



자료 : OECD, oecd stat. 2018.12. 기준.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년 8월 수치임.

연령별로 보면 우리나라 15~24세 청년층의 비자발적 시간제 선택 비중은 13.6%로 OECD 평균과 동일하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낮은 수준의 국가로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독일, 덴마크, 일본 등이 있고, 남부유럽국가들과 프랑스는 청년 비자발적 시간제가 전체 시간제의 절반을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노동시장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본격적 노동시장으로 진입해 경력을 쌓아가며 일을 하기 전 단계의 아르바이트 개념이 강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시간제 근로 증가는 노동시장 진입연령인 청년층과 은퇴연령층인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으며,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시간제 근로가 증가했다. 주로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은 산업인 숙박음식점업, 보건복지업, 여가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시간제 비중이 2013년에 비해 2018년 크게 증가했다. 시간제 중 저임금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여성에 의한 것으로, 남성 시간제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 비중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여성은 여전히 절반 이상이 저임금상태에 있어 큰 개선을 보이지는 않았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비자발적 시간제 비중은 20% 수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특별히 비자발적 시간제가 많은 나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에 비자발 시간제 비중이 높았고, 특히 남성 핵심연령층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발적 시간제의 일자리 선택 사유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근로조건에 만족’과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남성은 ‘취업준비 병행’이, 여성은 ‘육아가사 병행’이 그 뒤를 이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특성이 저임금 특성을 갖는 부문에서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간제 중 약 80% 정도가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하고 있어 학업이나 자녀돌봄, 은퇴 이후 등 다양한 사유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전일제를 구하지 못해서 시간제를 선택했다는 질문 이후 일자리 선택 사유에 있어 통계청의 기존 설문방식인 주관적인 자발/비자발 기준에 맞춰 통계청의 자발로 분류되는 사람이 국제적 기준의 비자발로 응답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제해 놓고 있다. 이는 근로조건에 만족이 아닌 시간선택의 유연성 필요에 따른 전일제/시간제 선택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다. 분석결과에서 보였듯 일·가정 양립이나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분명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통계가 필요하다. 또한 생애단계의 필요에 부응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마련과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과 전일제와 시간제 전환의 선택가능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근로자 선택에 부응하는 양질의 시간제 근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KLI**